

계열화사업 등장, 중계·부화장 생산시설 확대의 결과는 무엇인가?



강 용 식
너비에너지 대표

1. 중계부화업계의 현황

뜻하지 않은 IMF 시대를 맞이하여 지나간 중계·부화업을 뒤돌아 볼 때 자금의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IMF로 인한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라도 이미 이 업계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오던 터에 IMF라는 한파에, 이젠 업계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 말려들게 되었다.

88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거품 경제 드라이브정책에 이어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와 유가 안정이란 외부적인 호조건하에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국내의 경기는 거품 호황을 맞이하면서 각 분야에 갑작스런 변화가 왔다.

특히 국민의 의·식·주에의 변화와 더불어 닭고기 소비량도 올림픽을 전후기점으로 폭발적인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다(양념통닭). 생산이 소비를 따르지 못하는 장기간의 호황상황으로 인해 생산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 시설만 늘리는데 급급하였다. 그 결과 '90년대로 접어들며 경기의 침체 즉 거품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주기적인 생산과잉으로 호·불황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도 생산성의 제고는 커녕, 계열업체라는 거대한 공장의 등장으로 인해 생산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만 갔다. 새로 등장한 계열업체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업계와의 공존·공생을 위한 모색은 커녕 시장점유율 선두라는 전제하에 생산에만 더욱 박차를 가해 왔다.

계열업체들이 고가의 초생추가격과,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각 업체에 필요한 중계 확보와 더불어 부화시설을 갖추어 생산에 들어 갈때에 일반 중계·부화업자도 정부의 정책 자금과 차입금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시장 상황은 외면하고 생산시설을 늘려만 갔다.

그 결과 '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계열업체의 생산량과 기존업자의 생산량이 맞물리

면서 주기적인 육계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일반 육계 사육업자들이 도산을 하여 폐업·전업을 하는 상황에도 부화종계업을 확장한 생산시설에 생산량을 맞추어 생산을 하고 막연한 기대 심리하에 경영을 하다보니 계열업체는 자체 초생추의 확보, 일반사육업자의 사육기반 붕괴라는 시장상황하에 '96년 하반기부터 '97년도로 이어지는 일년반동안 종계·부화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간 지속되어 오던 불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생산량 조절에 힘입어 불황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IMF의 뒷서리를 맞아 이 업계는 회생 불능의 공멸의 길로 접어들고 말아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2. 종계·부화업의 장래(구조조정)

이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하에 시급한 생산량 조절만이 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구조적인 모순과 반목으로 인해 업자들간의 합의를 도출, 난국을 타결하는 길은 전혀 기대밖으로 되었다.

앞으로 닥쳐올 온 나라 전체의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 소비는 기대 이하로 줄어들 것이 자명하고,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얼마만큼 감소가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생산을 하는 종계·부화업자들은 나는 살고 다른 업자가 먼저 도산하기를 바라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 눈치만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버렸다. 결국 자유경제체제하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적자생존”이라는 상황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지금의 국내생산 시설로 볼 때 향후 10여년간은 국

내에서 필요한 닭을 생산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아닐까 여겨진다.

자금력과 경영면에서 취약한 일반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계열업체들보다 먼저 도산을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자금의 수월로 인해 향후 계열업체들은 장기간 버티어 나갈 것이다. 결국은 GP농장을 위시 10여개 안팎의 일반 부화장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종계·부화업의 나아갈 길(생존방안)

지금이라도 업계 스스로 생산조절을 못할 상황이라면 정부의 주도하에 계열업체와 일반업체의 보유종계를 강제감축하는 생산감축 명령의 발동을 건의하여 대폭적인 생산량 감축을 하는 길밖에 없다. 감축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축발기금에서의 적절한 보상을 강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산량 감축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같고 스스로 시장기능과 개별경영 능력에 맞겨진다면 맨먼저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여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생산비를 맞출 수 있는 생산을 해야 되겠고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정리하여 고금리하의 외부차입금을 정리하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길과 각자 개인의 개별능력을 파악하여 생산능력보다는 경영능력에 맞추어 경영을 하지 않으면 모두 순서대로 도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저것 당장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 막연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을 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본인은 물론 주위의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 **양계**